2027 아브라함 카이퍼 컨퍼런스

한국개최 준비위원회 기자회견

2026.03.05(목) 11:00

성락성결교회 801호

인사말 지형은 (기윤실 이사장, 성락성결교회 담임목사)

발표

아브라함 카이퍼 컨퍼런스의 역사와 위상, 한국 개최 이유
Mattew Kaemingk (네델란드 위트레흐트 신학대학교 교수)
김정기 (네델란드 위트레흐트 신학대학교 신칼빈주의연구소 연구원)

2027 아브라함 카이퍼 컨퍼런스 한국 개최의 의미와 준비 계획
정병오 (기윤실 공동대표)

질의응답 기자회견 참가자 모두

문의 준비위원회 사무국 02-794-6200 cemk@hanmail.net

〈회견 자료〉

〈2027 아브라함 카이퍼 컨퍼런스〉 한국 개최

1. 아브라함 카이퍼는 누구인가?

Abraham Kuyper는 네덜란드의 목사이자 언론인, 신학자, 정치인으로, 네덜란드 반혁명당을 창당한 인물이다. 그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정통적 신앙을 바탕으로 발전하는 사회의 현실 속에 촘촘한 관계를 맺으며 지나친 갈등을 촉발하는 투쟁이나, 어려 당시 사회 문제에서 도망치지 않고, 언론을 포함한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토론과 정치적 영역 안에서 문제를 다루는 등의 제3의 길을 개척하였다. 그는 '한 개의 머리와 열 개의 손을 가진 사람'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자신의 소명에 헌신적으로 살았던 인물로 평가받는다. 카이퍼의 신학과 생애는 칼빈주의에 대한 깊은 애정, 가난한 이웃에 대한 연민, 인도네시아 식민지 착취에 대한 비판, 그리고 저임금 기독 노동자 자녀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헌신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는 신앙이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 영역에서 구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카이퍼는 한국과도 인연이 있다. 그는 1904년 러일전쟁 당시 한국의 종교·역사·지리적 특성에 대해 깊은 이해를 보였으며, 이러한 내용은 그가 창간한 신문 『De Standaard』를 통해 상세히 보도되었다. 또한 헤이그 특사 사건의 주역인 이준 열사의 장례식에는 반혁명당 출신 정치인 A.E. Mackay가 참석하였다. 그는 이준을 '친구'라 부르며 네덜란드 청년 기독교인들과 함께 장례를 지켰다.

카이퍼의 대표적 업적으로는 이른바 "교육 투쟁(Schoolstrijd)"에서의 승리를 들 수 있다. 그는 전체 의석의 약 8%에 불과했던 정당의 한계를 전략적 연정을 통해 극복하고 수상에 올랐다. 이후 60년에 걸친 교육법 개정 노력 끝에 기독교 학교가 공립학교와 차별 없이 재정 지원을 받도록 하는 데 성공하였다. 오늘날 네덜란드의 기독교 초등학교가 공적 지원을 받는 제도적 기반은 그의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2. 아브라함 카이퍼 컨퍼런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신학과 노동, 신학과 AI 등의 기술의 발전, 신학과 기독교학교 교육, 신학과 정치 등의 관계들과 같은 실생활과 신학과 관련된 많은 해결되어야 하는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신학과 다양한 학문, 사회적 문제를 결합하여 기독교적 해결방안을 모색한 인물로, 카이퍼 컨퍼런스는 카이퍼의 이런 유산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교회 및 사회를 섬기고자 하는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어오고 있는 국제 학술 모임이다. 컨퍼런스는 매회 카이퍼 상 수상자를 선정하며, 수상자가 제안한 주제에 맞추어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 여러 나라의 학자 및 사회 각 분야 인사 수십 명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한다.

3. 한국 개최 이유

한국에는 일찍부터 영역주권, 일반은총을 비롯한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이 소개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기독교 학문, 기독교 시민운동, 기독 전문인 운동 등 각 영역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모범이 되는 사례다. 동시에 한국 기독교는 세계 기독교가 겪고 있는 정치와 종교의 관계, 다양한 사회 갈등과 기독교적 대응 등과 관련하여 압축적인 경험을 하고 있다.

이에 2027년 아브라함 카이퍼 컨퍼런스 한국 개최를 통해 한국에서의 아브라함 카이퍼 사상의 실천 사례들을 세계 기독교와 공유하고 그 내용에 대한 신학적 피드백 작업을 통해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 사회와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갈등과 고민과 관련해서도 아브라함 카이퍼 관련 석학들과 한국 학자들과 실천가들의 연구와 대화를 통해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컨퍼런스 세부 계획

1) 일시 : 2027년 2월 25일(목)-27일(토)
2) 장소 : 미정(서울 시내 교회 혹은 대학교 섭외 중)
3) 발표는 영어로 진행되며, 원활한 질의응답을 위해 한-영 동시통역이 제공될 예정이다. 논문 발표 신청은 2026년 5~6월경 진행될 예정이며, 컨퍼런스 총책임자인 미국 칼빈 신학교의 Jordan Ballor 교수가 발표자를 최종 선정한다.

5. 한국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1) 2025년, 아브라함 카이퍼 컨퍼런스 본부로부터 2027년 컨퍼런스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를 희망하며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국내 관련 학자들과 단체들을 조직해줄 것을 요청받았다.
2) 컨퍼런스 준비위원회 : 현재까지 참여를 확정한 단체/기관은 아래와 같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좋은교사운동, 기독법률가회,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벤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 라브리 코리아, LAMS KOREA, 인권실천시민연합, 동북아 화해포럼, 평신도신앙실천운동, 현대기독연구원, 영등포산업선교회, 희년함께, 희년선교회,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청어람 ARMC, 칼빈학문연구회, 새삶연구소 (이 외에도 현재 10여 곳이 참여를 논의 중이며, 참여를 희망 단체는 계속 받을 예정이다.)
3) 컨퍼런스 자문위원회 : 지형은 담임목사(성락성결교회), 강영안 석좌교수(한동대), 정현구 총장(에스라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신국원 명예교수(총신대), 김동춘 원장(현대기독연구원), 전재중 변호사(기독법률가회), 송인수 대표(교육의봄)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받고 있다.
4) 실행위원회 : 향후 참여단체 대표들 중 희망자 그리고 아브라함 카이퍼 관심 학자와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컨퍼런스의 실무적인 준비와 더불어 컨퍼런스가 한국 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의해갈 계획이다.

6. 별첨자료

1) Kuyper conference 2024
2) Kuyper Conference Program DRAFT 2024
3) Kuyper Prize winners list through 2025